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3년도 표어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행동지침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요엘서-

시대의 징조 (요엘 1장 1 - 20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목사)

요엘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요엘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의 학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요시아 왕 때에 씌어졌다고 하고, 이사야서보다도 먼저 씌어진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BC 6세기 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때를 분별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재앙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위기가 얼마나 가깝게 닥쳐왔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한 자들도 농부들도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

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는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13절).

제사장들은 밭의 곡식에 의존하는 소제와 포도나무의 소산에 의존하는 전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슬피 울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당하는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재앙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위기가 얼마나 가깝게 닥쳐왔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울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손들이 망할 것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2.요엘의 교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14절).

금식일을 정하라는 것은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회는 공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도 원하시지만 함께 모여 하는 민족적 회개를 더욱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애원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씨가 흫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공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다”(17절).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저장했으나 이것까지 흫덩이 아래에서 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습니다(18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 만물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울며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울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영원히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성도의 직임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요엘의 메시지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2절).

늙은 사람들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늙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에도 있었는지 후손들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요엘은 늙은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늙은 사람들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물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보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읽어주어야 합니다.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4절).

위의 말씀은 재앙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먹고도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은 단 번에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기시어 회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취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5절).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포도주가 끊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침략하므로 인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굶어 말갹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7절).

사람이 수고하고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하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농부들은 땀 흘리고 씨를 뿌려 가꾸었으나 얻을 것이 없습니다. 창고가 비고 곡식이 시들었습니다(11절). 물질을 더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

성경과 함께 하는 설 연휴

-성경통독사경회 1월31일, 2월1일 양일간 개최-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향하고 온 가족이 모여 조상을 모신다는 명목 하에 제사를 준비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의 때를 맞아 우리 교회는 민족과 세계를 위한 제사장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올 설 연휴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친국을 소망하며 보내기로 하였다.

성경통독사경회는 평소 직장 및 사업에 쫓겨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를 얻지 못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통독하며 성경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올 성경통독사경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성경을 같이 읽으며 큰 은혜 받은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자세한 성경통독사경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 시: 2003년 1월31일(금)08:00 ~ 2월1일(토) 12:00
- 장 소: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 성경통독범위: 지혜서 및 소선지서 중심
- 강 사: 본 교회 목사, 전도사
- 회 비: 10,000 원
- 신청접수: 사무국

담임목사 신년 환자심방 시작 한다

- 1, 2월 중에 -

우리교회는 매년 신년 초에 담임목사이신 이종운 목사가 병환으로 장기간(1년 이상) 교회출입을 못하고 역경중에 있는 성도들을 심방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건강,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올해도 1월과 2월 두 달간을 특별 심방기간으로 정하여 담당 교역자 및 교구 식구들과 함께 환자 심방을 하게 된다. 올해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게 되는 성도들은 기도하며 준비하여 은혜로운 시간, 큰 위로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성경통독자 시상

교회는 1월 성경통독자 시상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시상 받는 성도는 다음과 같으며 교회는 이들에게 교회 이름이 새겨진 머그컵 세트를 상품으로 준다.

- (2등): 오길탁 집사(1교구),
- (1등): 이은희 권사(4교구), 홍광숙 집사(4교구), 하정자 권사(7교구), 강희자 권사(8교구), 윤봉준 장로(9교구), 김명화 집사(9교구), 박철훈 장로(11교구), 장정화 권사(11교구), 정빈모 집사(12교구),

2003년도 장학회 구성

교회는 2003년도 장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위원장: 전기섭 장로
- 위 원: 박철훈 장로(교육 3국장), 김태기 장로(전도위원장), 이학주 집사(대학부장), 송인권 집사(청년부장)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임종현(고등부)

지난주 토요일 밤에 연말마다 있었던 "아이노스의 밤" 행사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렸다.

원래대로라면 12월 말쯤에 열렸어야 했지만, 여러 고등학교에서의 봄방학폐지로 인해 방학날짜와 시험날짜 등이 맞지 않아 행사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1월에 "아이노스의 밤"이 열리게 된 것이다. 1월에 "아이노스의 밤"을 열게 되어 많은 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 방학 중이라 친구들과 연락도 힘들어 많은 지체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나 또한 작년 처럼 많은 인원이 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속으로 걱정이 컸었다. 하지만 작년과 비슷하게 지체들은 모여 주었고 오히려 1월중에 갖은 행사가 그 정도였다는 것은 작년보다도 더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큰 은혜를 고등부에 내려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아이노스(amos)란 헬라어로 (찬양, 찬미)라는 뜻이다. 이번 고등부 "아이노스의 밤"에서는 대학부와 고등부의 연합 찬양팀이 첫 순서를 이끌었고 수화와 worship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부에서 악기를 다룰 줄 아는 형제, 자매들의 콘서트가 있었고, 모든 시간의 사이사이에 고등부를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이 준비하신 영상 풍트가 상영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학부 이주연 누나의 지도 하에 고등부학생들이 준비한 뮤지컬로 "아이노스의 밤"을

펼쳤었다. 준비하는 10일간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했고 눈물도 흘리게 했지만, 지나고 난 뒤 지금 생각하니 그러한 일들을 통해 서로가 더 알게 되고 합력 함으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아이노스의 밤"이 끝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쁘다. 이제 우리85포대들은 고3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아이노스의 밤"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도 그전에 이렇게 좋은 추억, 경험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큰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또 고등부 또한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정말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 진행방법

- ① 낭독은 전임 교역자들이 담당하여 매 교시 4명의 교역자가 1장씩 번갈아 낭독한다.
- ② 낭독자들이 읽는 동안 성도들은 일체의 잡담을 금하며, 눈으로 글씨를 바로보고 귀로 정확하게 들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
- ③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전체가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며 끝부분에는 "아멘"이라고 외친다.
- ④ 성경전체의 흐름(맥)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한다.
- ⑤ 손에 색연필을 들고 줄을 치거나 각종 표시를 하며 읽는다.
- ⑥ 개역개정판 성경을 교재로 한다.

시간	낭독	1월31일(금)	2월1일(토)
8~10시	이상득 이규정 김운호 윤영국	개회예배(이종운 목사) 을기1장~시편9편	다니엘1장~아모스9장 오바디1장~말라기4장
10:10~12:00	한상은 오정식 이용식 지혜영	시편10편~78편	
12:00~13:00		점심식사	
13:00~14:50	이상득 이규정 김운호 윤영국	시편79편~150편	
15:00~17:00	한상은 오정식 이용식 지혜영	집언1장~아가서8장	

초등부 가정학습지 발간

중증 어린이들의 가정 성경공부를 위해 초등부는 1월 둘째 주부터 매 주일 어린이들에게 가정 학습지를 배부하기로 하였다.

가정학습지는 그 주일의 공과공부와 연관된 어린이 Q.T, 현재 초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약성경 읽기에 따른 문제풀이(마태복음부터 한 주일에 1장씩) 등, 어린이들이 주중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알찬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차차 말씀공부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어린이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치지역 교회연합회 발족

대치동 지역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교회들의 초교파적 모임인 대치지역 교회연합회가 지난 9일 창립회의를 통해 22개 교회가 모인 가운데 발족하였다. 대치지역 교회연합회는 앞으로 대치동지역의 복음화와 교회연합에 도움을 주게 된다.

본 교회 이종운 목사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중등부 수련회

우리교회 중등부 수련회가 1월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3일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라를 주제로 개최된다. 장소는 교회에서 개최되며 501호와 102호에서 진행된다. 23일(금)오전 9시30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경찬송과 필기구, 세면 도구, 간단한 컵류를 준비하면 된다.

2003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회

노문환 장로(교육위원장)

교회설립 1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교회는 새로운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을 전담할 준 전임교역자를 모시기로 하고 우선 다섯 분의 목사(전도사)를 모셔 유년부, 초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예배다부를 지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학교 전담교역자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학교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지도교역자와 부장단,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부서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교사들이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날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로 심방하여 장기 결석생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각 교회학교마다 전도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우고 부서의 환경에 맞는 전도대를 만들며 전도방법을 개발하여 전도하기에 힘쓰는 교회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학교가 되도록 각 부서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대내적으로는 사랑부와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는 일에 나서며 대외적으로는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는 곳을 찾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 합니다. 기도가 필요 합니다. 지원이 필요 합니다. 온 교회가 배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령에 맞는 교회학교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셨거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신 분은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함께 섬길 교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구령(救靈)의 열정을 주소서
김태기 장로(전도위원장)

우리 서울교회 설립 정신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2003년도 전도 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전도위원회와 선교위원회를 통합하고 전도부와 선교부 그리고 70인 전도대로 재편하여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도 면에서는 온 교회에 전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직 자부터 솔선하여 전도하는 모델이 되도록 하여 마침내 전교인이 배가운동에 참여하여 민족 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그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교면에서는 전 교회가 선교 기지화 되게 하고 전 교인이 실제적 선교활동에 동참하게 하여 세계 선교의 센터 역할을 역동적으로 감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전도부의 추진사항으로 장기적 전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전도 교육을 강화하고 매주일 미등록 교인을 찾아 등록을 권면하며 남·여전도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흥해 작전, 사명자 대회에서 전도분야를 활성화하고 놓여온 100교회 운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교회 홈페이지에 전도 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교회와 믿음을 홍보하며 신앙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의 실천사항으로 남·여전도회와 각 교회학교와 다락방과 전교인으로 확대해 가며 현지인 선교사와 단기 선교지역과 현지인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의 고리를 연결하여 선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간사를 선정하여 선교 현지와외 정기적인 연락으로 상황과 소식을 교환하며 선교 활동에 필요한 문서나 서적 테이프 등 선교자료를 발송하고 지원하는 창구를 열며 KIMCHI 세미나를 적극 지원하고 직능별 선교회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서울교회 온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의 후원만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은 미래의 서울교회 일꾼들!



박찬우(유년부 어린이 회장)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유년부 어린이 회장을 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어린이,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도하는 어린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03년 포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어린이'가 되도록 저희 유년부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유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희(유년부 부회장)

저는 제가 유년부 부회장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단 저를 뽑아주신 어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시간도 넉넉해져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기도하고 우리교회와 유년부가 훨씬 발전하고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 가정을 찾아서 (장재환 목사님 가정편)

올해 대학부 전임목사로 청빙되신 장재환 목사님은 장신대와 N.Y.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기독교 교육학과 인간관계학을 전공하신 교육통이시다.



먼저 장 목사님에게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교회학교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학부의 달라지는 새해 모습과 비전을 들어보았다. 현재 대학부는 1979년생으로부터 1984년생까지의 여섯 그룹의 또래로 구성되어 있다.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8시까지 자체모임을 갖는데 소그룹 성경공부인 G.B.S.와 찬양 및 말씀과 기도, 친교와 저녁식사를 매주 나누고 있다. 장 목사님은 서울교회 대학부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받을 가진 심성이 끊고 가지런한 젊은이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대학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고받는 손수하고 맑은 대화들로부터도 같은 인상을 받았었다.

심은 대로 정직하게 일과 열매를 낼 젊은이들의 대학부, 목사님은 이 귀한 젊은이들을 위해 2003년도 양육의 비전을 <기초다지기>의 해로 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

먼저, 새해부터 대학부는 6년차의 각 또래들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학년장 제도를 도입한다. 각 학년들에는 학년장과 총무, 서기, 선교부장이 선출되며 교사 한 분씩이 이에 동참하여 세심하고 집중적인 학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대내적인 회원관리와 각종 경조사를 담당하게 될 학년장 제도와 대학부의 대내외적 사역을 담당할 임원 대상의 성경공부가 월 1-2회로 병행되면서 리더 양육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G.B.S.를 이끌어갈 조장들을 위한 리더그룹도 월 2-3회의 중점적인 양육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인데,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의 정착과 소그룹의 활성화로 연내 300명 출석의 대학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는 83, 84 또래의 학년들에는 교사 분들을 두 배로 배정하여 자칫 풀어지기 쉬운 막내들을 돌보고, 장기결석자 및 신입회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어서 질적·양적 부흥의 대학부로 거듭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서울교회 대학부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

대학부에 속하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서로 지체됨을 깊이 경험하고 사모하는, 성숙한 기독교청년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성경은 물론, 역사의식으로부터 일반상식에 이르기까지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장목사님은 또한 같이 협력하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

가는 교역자와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계획에서부터 시행, 점검에 이르기까지 오지현 사모님과 아들 명훈 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차량부 봉사위원이 되어 주세요

주일 I, II, III 부 예배시간이 임박하면 주차장과 교회앞 노상 주차장은 들어오고 나오는 성도들의 차량으로 혼란이 야기된다. 주차를 도우실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남녀 불문하고 환영한다. 교회 사무국에 신청 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지켜주세요-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앞(한티공원 앞)에 일렬 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차량이 주차하다보니 버스 정류장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버스 정류장 표지 주변 6M는 이웃 주민을 위해 비워두는 것이 예의 바른 서울교회 성도의 모습이다.

순례자신년 테마 기획 (2)

인간복제는 인류재앙의 판도라 상자

김영한 목사(서술교회 협동목사 · 숭실대 기독교학 대학원장)

복제 인간 프로젝트를 공공연히 밝혀왔던 미국 클로네이드(Clonaid)사가 복제 여아(女兒) '이브'(Eve)의 출생 사실을 발표했다. 2002년 12월 26일 첫 복제 여아가 태어났으며 내년 4월까지 4명이 더 출생될 것이라고 한다. 인간 복제 시대가 사실로 다가왔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간복제를 주도한 이 회사는 사이비 종교집단 '라엘리언 무브먼트'(Raelian Movement)의 비밀 사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그것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네 구속자야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사 44:24)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한 생명 탄생은 창조주가 내려주신 자연의 질서이다. 생명 복제는 생명 다양성을 실종시키고 생태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다.

필자는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생명윤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간복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언제 인간복제가 사실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한국도 세계 5위권에 드는 복제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혈연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또한 국내에서도 라엘리언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기술적 진보에 관한 열정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한국도 장담할 수 없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소의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끼워 넣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실험이 진행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다.

첫째, 과학기술을 이용한 사이비 종교영역이다.

제2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다. 인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전 인류가 죄에 빠졌듯이 인간복제로 인해 인류는 재앙의 판도라 상자를 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집단의 교주 라엘은 "이번 복제는 영생에 이르는 첫걸음"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뇌이식을 통해 성인 복제 인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제는 영생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라 인류 재앙으로 가는 길이다. 복제아를 고속 성장시킨 뒤 복제 대상자의 생각과 기억까지도 입력시켜 행동과 생각이 똑같도록 하려는 라엘의 시도는 더 이상 과학적 연구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영생을 추구하는 비현실적인 사이비종교 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을 시도하는 제2의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인간 존엄성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이다.

복제인간의 출생은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고 기존의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고 인간의 상호존성도 사라진다.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과 조작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인간의 도구화와 수단화가 가속화된다. 라엘이 목표로 하는 '이식을 통한 성인 복제인간 개발' 시도는 인간의 존엄을 깨뜨리는 시도이다. 복제된 천재나 독재자나 노예가 양산될 수 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난 후 폐기 처분될 많은 보조인간이 생겨나고 미인과 우생아를 대량 복제하여 상품화하고 악인을 복제하여 세상을 지배하려는 우생학적 범죄가 발생하는 등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다.

셋째, 자연의 섭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유년부 축구전도-

이종창 집사(유년부 교사)

지난 2002년 9월부터 우리 유년부(부장: 신용식 집사)에서는 축구로 전도의 불을 당기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200명의 유년부원들이 모이도록 간절한 기도 속에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이 축구 전도는 유년부 선생님들의 헌신 속에 매년 경기 때마다 20명 이상 최대 50여명의 유년부원들이 모여 땀을 흘리며 축구 시합을 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는 곳은 은마 아파트 단지 내 십자공원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게임이 끝난 후 지도 교역자가 마무리 기도하실 때 초청을 받아 함께 축구를 하며 땀, 아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도 함께 '아멘'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 그들의 부모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시한번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유년부의 축구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이웃 주민들이 서울교회로 향하는 큰 감사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동정

- 이미경 성도(이종운 목사 장녀)는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올겐을 전공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논문이 통과되어 오는 4월 졸업식에서 학위를 받게 되었다.
- 임규현 목사(에바나무 지도) 한국 농악인 선교연합회 총회에서 총무로 선임되었다.
- 박정선 집사(11교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는 N. Strimple의 20세기 합창음악이라는 책에 저명한 음악가로 소개되고 Edu Classic 잡지의 1월호 표지인물로 소개되었다.
- 이사: 11교구 권오중 성도, 장외남 집사, 서울 송파구 방이1동 161-10호, 전화: 414-8125
- 금주의 식사: 이구연 집사 · 이복란 집사 가정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해 새 출발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2.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